하나님 조종과 하나님 순종

(신4:1~49)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조종과 하나님 순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조종과 하나님 순종'
조사를 제대로 붙여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조종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복지에 초대 받아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구약에서는 선민입니다. 그 속에는 진짜 선민이 있고 가짜 선민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 그룹 안에는 진짜 선민과 가짜 선민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아바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가짜 선민들은 복지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를 행하게 되고, 진짜 선민들은 복지 유지 아바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복지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를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이고, 복지 유지 아바타 프로젝트를 다른 말로하면 하나님께 순

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Avatar)” 아시죠? 1,000만이 넘었으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2154년에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4.4광년이나 떨어져있는 머나먼 행성인 판도라에서 자원을 채굴해서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도라 행성의 대기에는 우리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원을 채굴할 수가 없는데, 마침 그 행성에 토착민 나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종족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혼합한 하이브리드(異種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혼합, 혼혈을 말함) 생명체인 ‘아바타’를 탄생시킵니다. 외형은 나비 족과 똑같이 생겼는데 인간의 의식을 주입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듭니다. 사람이 관 같은 기계 속에 들어가서 아바타의 눈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갖고 뜻을 갖게 되어 인간의 주체적인 내적활동이 샘물이 흘러가듯이 아바타에게 흘러들어가서 분신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70% 이상이 그 주제와 소재를 성경에서 찾는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생명체인 아바타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에 좋은 비유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직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지 판단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뜻을 가질 수 있고 소원과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주체적 활동들은 멈춰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판단과 생각과 뜻과 소원과 계획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분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로 분신인데 아바타와 똑같습니다.
단지 영화 속의 아바타는(나비 족과 똑같이 생긴 3미터 크기의 파란색의 몸체) 사람이 조종을 했지만,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 아바타는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일어나고, 인간의 마음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만족과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그곳을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인간이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주체적 활동의 내용들인 생각과 판단과 소원과 계획과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할 아바타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었는데, 타락 후에는 나 스스로가 아바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에게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복지로 초대된 뒤에 끊임없이 날마다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복지가 유지되는 아바타

프로젝트이고, 타락한 뒤로 내 몸의 체질이 된 죄적 경향을 따라서 아직도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관철하고 성취하기 위한 아바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복지를 상실하는 아바타 프로젝트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생긴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에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 만큼이라도 옆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하고 뒤로 발전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숭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데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설교 해나가면서 복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당부했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가 나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 때에 나의 뜻과 판단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만 벌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뜻을 행하라'는 것이고 '벌라'는 것인데 복지에서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율법이 주는 뉘앙스와 분위기 속에 이미 편견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닌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최고의 하나님 뜻 재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를 우리도 바라면서 살게 되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미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나간다는 것인데 이게 참 지독하게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1~8절까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한 후에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앞의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바알브올의 사건을 떠올리며 우상숭배를 했던 자들과 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면서 마음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이 마음을 지킨 것인데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마음이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규례를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려면 여호와께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우리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빈 공간의 흡입력이 자석처럼 작용을 하는데, 마치 청소기를 돌리다보면 바닥의 양말 같은 것을 확 빨아들여서 막혀버리고, 학용품 같은 것들도 확확 빨려 들어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진공청소기 안으로 빨아들이면 안 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비어있음은 우리의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바란다면 마음에 돈이 빨려 들어간 것이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강한 흡입력 주입구를 하나님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흡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다른 것들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돈, 건강, 장수, 형통, 번영 등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독일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났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단 한 골을 열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소원하기 시작하면,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신 것도 다 말씀으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흡입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아름답고 좋다고 느끼는 세상 것들을(돈, 건강, 승진, 교회부흥, 예배당 건축, 자동차…) 흡입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자동적으로 복지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가 수행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갖게 된 소원을 수행해줄 아바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면 내 주체적 활동 내용을 불상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불상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입하고 있는 모든 소원을 그대로 행하라'라는 아바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선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조차 우상시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맙니다.
은근한 소원이든 노골적인 소원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서의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의 아바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복지는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예표적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난리가 나서 내 마음의 주체성이 하나님께 흘러들어가기를 바라고, 이 복지 상실의 아바타 프로젝트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기도는 복지 유지를 위한 아바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소원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바타가 되어 드려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아바타를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조차도 아바타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망하는 길이 바로 복지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복지를 상실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관건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저절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셔서 마음이 지켜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본토친척아비집이 들어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이 지켜지기만 하면 규례와 법도는 어려울 게 없다는 것이 모세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본문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10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데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대부분이 실제로 시내산에 있었던 자들이 아닌데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는 현상들이 있었을 때 너희가 그때에 서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증거로 현상을 이야기하며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출현으로 말씀에 담겨서 전해질 때에는 언제나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서 시내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시내산의 이야기는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본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타나셨어도 4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40년 전에 나타나실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기억될 때에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금도 우레와 구름과 불을 동반하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자기의 해석을 가하게 됩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증거를 기억해서 마음을 지키라

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라고 하고, 출19:16절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라고 나오는데 모세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라고 하는데 불길이 충천한데 왜 어둠과 흑암이 덮였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데 뜻하는 바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왜 나름대로 바꾸어서 해석을 했던 것일까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과 빽빽한 구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과 흑암을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서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로는 구름이 있고 앞뒤좌우로는 어둠과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름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만 불길 속에서 나타나시는 형국을 이야기한 것인데, 뜻하는 바는 구름으로 경계되는 하늘과 땅, 하늘과 구름 아래 이 세상은 동서남북이 흑암과 어둠으로 덮여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빛이 존재하는 곳은 오직 구름 위로부터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복지에 들어가더라도 삶의 동서남북을 어둠과 흑암으로 덮으라는 것인데 죽으라는 것이고, 이 사건이 그대로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온 천지에 흑암이 임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에게는 삶에 흑암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자가로 옮겨지는 중간 과정에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므로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의 너희의 삶은 동서남북이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야 하고, 빛은 오직 구름 위의 하늘에만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빛이 있는 쪽으로 돌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길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만난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어둠만 존재합니다. 사업장에도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자식과의 만남에도 온통 어둠뿐입니다. 어둠은 내 판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빛은 구름 위의 하늘에서 비쳐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삶에 어둠을 조성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나의 주체성이 죽어서 어둠이 되면, 오직 빛은 위에서만 오게 되어 주님을 따라 부활하고 승천할 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의 기록(성문화)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외에도 내 삶의 특수성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는 프로젝트가 수행되어갈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아래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구름 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내려오시므로, 불길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마음을 지켜내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버는 부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깊고 세밀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복지 상실 아바타 프로젝트를 행하는 경향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날마다 손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벌어들이는 복지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